

# 누가 우리 민족의 진짜 주적인가

## — 윤석열패당이 주장하는 《북주적론》을 두고 —

윤석열역도가 권좌를 차지한지 두달이 지났다.

비록 길지 않지만 역사의 진면모를 진단해보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다.

공개된바와 같이 지난 5월초 윤석열과 그 패당은 집권하기 바쁘게 이미 역사의 락업으로 버림받은 《북정권과 북인민군은 주적》이라는 대결용어를 다시 들추어내어 《국방백서》와 군정신교육지침서에 조아박았다.

반공화국적대정책이 《국시》로 책정된데 따라 지금 남조선에서는 《선제타격》과 《단호한 응징》 등의 호전적폭언들이 란무하고있으며 미핵전략자산들이 물러들어 북침을 노린 각종 명목

###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전면부정론

적이란 절대로 공존, 공생할수 없고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존재, 반드시 격멸해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적가운데서도 주되는 적, 첫째가는 원수가 바로 주적이다.

그런데 윤석열역적패당은 다른 누구도 아닌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꺼리낌없이 공포한것이다.

과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북주적론》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북은 협력의 대상이나 평화실현의 동반자도, 신뢰할 상대도 아니며 오직 적대관계에 있을뿐이라고 무작정 단언한것이다.

이는 북과 남의 공동발전과 민족적 단합, 평화달성을 온 민족앞에 서약하였던 과거의 모든 합의들과 선언들에 대한 로골적인 파기이다.

북과 남이 온 겨레의 지향에 부응하여 파란만장의 우여곡절을 헤치며 힘겹게 써나갔던 소중한 북남관계사에 대한 전면백지화이다.

이미 윤석열역도는 취임전 《위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을 《주적》으로 규정했는 선언자들의 《대북정책》의 완전결별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내놓고 공언하였다.

엄중하것은 역적패당이 《주적》의 대상을 우리 공화국정권과 그 수호자인 인민군대로 정하는것으로 우리의 《정권보피》와 《흡수통일》기도를 숨김없이 공개해낸것이다.

사실 역대 괴뢰집권자들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은자들이 없다.

그러나 우리 인민정권의 《보피》를 《국정파괴》로 정하고 입기간에 추구하고 핵심목표로 감히 《흡수통일》 실현

의 대규모공중, 해상연합훈련들에 광분하고있다.

며칠전에는 윤석열역도가 괴뢰록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 대결모의판을 벌여놓고 《주적판》을 바로가지라, 북의 《도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뇌거려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호전적인 대결광태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각일각 극단으로 치달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주장하는 《북주적론》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겨레의 평화소망을 핵전쟁의 악몽으로 뒤바꾸는 전쟁론이며 제스스로 비참한 종말을 자초하는 자멸론이다.

을 내세운 그런 불망나니, 대결악한은 없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전면부정을 《국책》으로 정하고 우리 《체제전복》을 공식화한것이야말로 반민족적당들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와 국가제도는 우리인민스스로가 선택한것으로서 이를 부정하는것은 곧 우리의 존재 그자체에 대한 전면거부를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가장 악랄한 적대행위이고 용납할수 없는 정치적도발로 된다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윤석열패당은 또한 우리의 자위권에 속하는 국방력강화조치들이 《도발》이고 《위협》이기때문에 우리를 《주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자위권은 우리의 국권이며 국방력강화조치는 날로 가중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행사이다.

이를 부정하는것은 우리의 국권에 대한 탄복한 침해이며 우리 군사적주권에 대한 무단한 도적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북주적론》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바로 그것을 저들의 들도 없는 생존수단으로, 집권유지의 명줄로 여기고있기때문이다.

저들의 파쇼통치, 반역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실체가 없었던 날조해내서라도 주적이 있어야 하고 안보불안세력이 존재해야만 생존과 집권을 유지할수 있다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의 괴이찍은 《생존관》이다.

내편이 아니면 적편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은 역대 보수집권세력이 비롯처럼 물러는 집권유지의 कै체묵은 유포

이다.

《북주적론》의 무지함과 황당함, 핵악성파 위협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다면 우리 민족의 진짜주적, 첫째가는 원수는 과연 누구인가.

###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한 전쟁론

윤석열패당의 《북주적론》은 사실상 북침도발을 기정사실화한 로골적인 전쟁론이다.

《주적》과의 극단적인 대결은 기필코 물리적종돌, 전쟁으로 이어지기마련이다.

동족을 교전상대로, 적으로 삼았다는것은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몇가지 사실들이 그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주적론》의 선창자는 윤석열역도이다.

권력의 덕대에 오른 윤석열역도가 무엇때문에 정치의 《정》자도 파악하기도 전에 《북주적론》부터 서둘러 내들었는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볼수 있겠지만 역도의 성장과정을 소급해보면 그에 대한 일정한 답을 찾을수 있을것이다.

교훈리개시절부터 골목대장이 되어 걸땀하면 싸움질을 하고 나쁜 짓거리만 플라하여 악동으로 락인되는 등 막스럼게 잔뼈를 굳히고 일단 검찰이 된 다음에는 피의자들을 끌어다 판장을 치고 괴투성이로 만들어 토설을 받아 내는것을 락종의 쾌락으로 삼은 폭군이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대통령》선거가 먼 발길이 닿는 유세장들마다에서 깃을 퍼워 인기를 끈다는것이 주먹질총내로 꼴볼전을 연출해댄것만 보아도 역도가 얼마나 강패기질이 몸에 짜들은 패덕한인가를 잘 알수 있다.

역도의 불망종기는 권좌에 틀고앉은 이후 더욱 유감없이 드러나고있다.

내외의 호된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끝끝내 《대통령》사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괴뢰국방부청사로 정한것은 안주인의 점괘를 따르는데도 있지만 보다는 대결과 전쟁의 상징인 그 건물이 화약내를 즐기는 호전광의 체질에 신통뎡뎡 들어맞았기때문일것이다.

괴뢰국방부청사에 《대통령》사무실을 정한 역도에게 있어서 《국정》의 1순위는 자연히 북침전쟁일수밖에 없고 그 실행의 전주곡으로 《북주적론》이 울러나오는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은 민족을 대결과 적대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권좌만 유지할수 있다면 무방하다는 천하에 돌도 없는 반역의 무리, 윤석열역적패당인것이다.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준동이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동과 남조선에 대한 핵전략자산들의 상시전개를 공식화한데 따라 미핵항공포함타격단과 핵전략폭격기들, 핵잠수함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떼지어 쏘어들고있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괴뢰군단독훈련들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다국적연합훈련들이 실전분위기속에서 대규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벌리는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는 조성된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베라살포는 상대에 대한 로골적인 심리모략전이다.

전쟁전략에 심리모략전이 벌어진다라는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다.

우리 군대가 이미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가 가장 로골적인 심리전이고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대결망동, 전쟁유발책동으로 된다것을 엄숙히 경고한것은 그때뿐이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정권》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지금과 같이 당국이 《탈북자》쓰레기들에게 베라살포기

### 비참한 종말을 자초하는 자멸론

세상에 천명하바와 같이 우리는 적을 특정하지 않는다.

우리 국가는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것을 전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그릇된 대결망동으로 하여 제스스로 우리의 주적으로, 괴역으로 나서고있다.

우리가 정상적인 자위권강화의 일환으로 조선동해상에 미차일시험발사를 진행해도, 1만 수천km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해도 다음아닌 저들이 그 표적으로 되겠다고 한사코 우겨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다.

군사적동태의 한이 되어서인가, 아니면 상식조차 모르는 우매한이어서인가.

물론 동서남북도 편별하지 못하는 무지때문만도 아니다.

여기에는 그레아만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무작정 《도발》로 걸고들수 있

재까지 제공해주며 반공화국심리모략전으로 내몬적은 없었다.

괴뢰패당이 얼마나 북침광중에 틀러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윤석열역도가 오죽이나 전쟁광중에 사로잡혔으면 백사불구하고 지구 한쪽번두리에서 진행되는 나토수뇌자회의에까지 부득부득 머리를 들이밀며 분주

타고 피워냈겠는가.

하긴 윤석열역도에게 《장검》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미국상전이 넘분처럼 외위대는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의사가 없다는 말치레가 마치 승냥이가 괴물은 이발로 풀을 뜯겠다는것과 같은 완전한 위선이고 기만이며 한갖 요설에 불과하다는것을 꺼려졌없는 《북주적론》나말로 만천하

에 증명해보였으니말이다.

우연한 실수인가, 아니다.

상전의 흥심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전쟁열에 들른 천하에 돌도 없는 특등호전광이기때문이다.

완화보다 격화를, 대화보다 대결을, 평화보다 전쟁을 추구하는 폭군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재난과 참변이 닥쳐오기 마련이다.

윤석열호전광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은 그 가능성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시간문제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동족을 격멸대상으로 삼고 온 겨레의 운명을 류혈과 참학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역적무리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짜주적이고 천하에 돌도 없는 재앙거리이다.

우리와의 오랜 교전국인 미국마저 핵용동이를 제멋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 어떤 침략세력이든 초전격멸할 만한 준비태세를 갖춘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덤벼들려는것은 자기 종말만을 재촉하는 미혹한것으로 될뿐이다.

그러지 않아도 남조선의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제일 위험한 직업으로 알려졌었다.

남조선이 인위적인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되어있는데다가 대국들의 짬에 끼워있는 《새우》라는 가궁한 신세때문이기도 하다.

남조선의 역대 집권자들이 말로나마 우리와의 관계개선과 평화를 외위대고 《북방정책》이요, 《샌드위치외교》요, 《균형외교》요 하며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눈알을 굴리며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매여달려온것이 우연하지 않다.

그러나 정치도 외교도 군사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윤석열역도는 선임자들의 숙명적인 교훈을 리해하지도 못하고 미국에만 떨어놓고 굴종, 추종, 맹종하여 주변대국들의 중의 대상, 보복용정의 표적으로 되고있다.

윤석열패당의 《북주적론》이야말로 곤장을 매고다니며 못매를 청하는 미련한 자멸망동이다.

하늘에 대고 제 머리에 불쏘시개를 내려달라고 비는 《자멸의 기우제》이기도 하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수 없는 법이다.

삼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미국상전의 꾀한 핵우산벨에 기여들어가 우리와 맞싸우겠다고 오기를 부리는 윤석열호전세력이야말로 불을 내뿜는 총구앞에 나서는 가련한 불탄당들이다.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반드시 소멸될것이라는 백들의 불회성이 이미 울려퍼졌는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저지른 죄악으로 자기의 진도를 철첵암혹으로 만들어놓은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관문점선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때나마 승풍이 트였던 때가 남조선에 있어서 두번다시 차례지지 않을얼마나 꿈만 같은 행운의 시기였고 돌도 없이 소중한 날이였는가를 두고두고 통감하게 될것이다.

은 겨레는 우리 민족의 진짜주적인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문제전문가 전성호

### 《조선없는 대화》타령

### 기만적인 체변 —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조선없는 대화》를 여론화하며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윤석열역도는 그

무슨 토론회에 보면 《국사》라는데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여둘것이라고 떠벌이였으며 《국무총리》라는자도 북이 대화의 장으로 나 올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 무슨 《담대한 계획》을 통한 《북남관계정상화》와 《인도주의적협력》에 대해 운운하였다.

통일부 장관이라는자 역시 《대화의 시작과 리행은 한걸음씩 발걸음으로 이루어질것》이라고 려설하였다. 속껍은 놈 비단보자기 뒤집어쓴다는 속담 그대로이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의 행태는 어떠한가.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적패당은 《대통령》감투를 쓰자마자 《북정권과 북인민군은 주적》이라는 대결용어를 《국방백서》와 군정신교육지침에 조아박았다. 또한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과 《단호한 응징》을 떠벌이며 《한미화장억제전략협의체》의 재가동과 미전략자산의 남조선전개를 공식화하고 괴뢰군단독훈련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다국적연합훈련들을 실전분위기속에서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그뿐인가. 공화국을 봉쇄, 암살하기 위한 국제적도의 판들을 찾아다니며 대결광기들을 부리고 지어 인간쓰레기들에게 베라살포기까지 제공해주며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내몰고있다.

이것이 《조선없는 대화》에 대하여 광고해대는 윤석열패당의 본색이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해 떠들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치기 위한 대결책동에 광분하는 앞뒤가 다른 괴뢰침착들, 속껍은자들이 바로 윤석열역도와 그 꾀거리들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진짜로 추구하는것은 대화가 아니라 대결이며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오물은 비단보자기로 감싸도 악취를 풍기는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이 제아무리 대화에 대해 떠들며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놀아대도 국악무도한 대결광, 전쟁열에 들른 천하에 돌도 없는 특등호전광의 정체를 숨길수 없다. 상대방을 극도로 적대시키고 대결에 광분하면서 대화에 대해 입에 올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이중적행태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참수할수 없는 모독이며 민심과 여론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다. 부인하건대 윤석열패당이 떠드는 대화타령은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는 저들의 추악한 본색을 가리우고 민심과 여론의 환심을 사보려는 기만적인 언동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은 겨레는 동족을 주적으로 삼고 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쳐달려들면서 민족에게 재앙을 몰아오는 윤석열역적무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대결망동

최근 남조선에서 련이어 벌어지고있는 반공화국베라살포망동이 겨레의 치웃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전 《탈북자》쓰레기단체인 《자유복합운동연합》것들은 반공화국베라와 더불어 물건딱들이 담긴 대형풍선들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날린 사실을 공개하였다.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대결망동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베라살포가 상대에 대한 로골적인 심리전으로서 군사적종돌과 전쟁의 전주곡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지난 시기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가 벌어질 때마다 북남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지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총포탄이 오가는 국면까지 조성되었던것이다.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고 세계적으로 군사적충돌의 위험이 가장 높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벌어지는 베라살포망동이야말로 최악

조직원, 조종자가 다음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반공화국베라살포망동은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것이다.

그것은 베라살포가 상대에 대한 로골적인 심리전으로서 군사적종돌과 전쟁의 전주곡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지난 시기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가 벌어질 때마다 북남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지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총포탄이 오가는 국면까지 조성되었던것이다.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고 세계적으로 군사적충돌의 위험이 가장 높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벌어지는 베라살포망동이야말로 최악

고우에서 불장난을 하는것이 나 다름바이다.

문제의 엄중성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얼마전 공화국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전문기관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조사한데 의하면 공화국경내에 류입된 《COVID-19》감염종의 첫 번째발병지역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전역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공화국경내에 확산된 악성전염병이 《탈북자》쓰레기들의 베라살포망동과 무관하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베라살포망동이 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패당이 이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를 묵인하고 부추기고있는것은 역적패당이야말로 《탈북자》쓰레기들과 다름없는 인간오물들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대재앙을 불러오는 장면인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를 중단시킬투단의 대책을 세우야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반공화국베라살포망동이 계속된다면 그 대가를 단탄히 치르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 후과는 공화국이 이미 천명한 것처럼 2년전에 단행된 북남공동련락사무소파괴도가 아니라는데 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가 제 무덤을 제손으로 파는 자멸행위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리연선